# 저탄소 검증한우, 전국에 유통

## 전북대-고창부안축협, 탄소저감 생산 시스템으로 '청춘한우' 출시… 내년까지 20여개 지점으로 확대

고창군이 15일 국가 비전이자 미래 전략인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저탄소 고창청춘한우' 출범을 위한 비전선포 및 협약식을 열었다.

전북대학교 링크3.0사업단(단장 송철규)은 저탄소 검증 한우인 '청춘한우'를 출시, 전국에 유통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업단과 전북대 교원창업 벤처기업인 멜리엔스(대표 이학교), 고창부안축협은 지난 2년 여간 산학협력을 통해 소의 사육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이를 개체별로 추적하고 계측 검증하는 시스템을 현장 적용했다. 이를 통해 저탄소 검증한우 브랜드 '청춘한우'를 개발, 1월부터 서울 롯데백화점 등 8개점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20여 개의 전국 지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단은 이날 고창군, 고창부안축협, 청춘한우사업단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저탄소 한우 산업화 전략 크리에이티브 포럼'을 열어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산업으로의 축산탄소중립을 위한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에 출시된 '청춘한우'는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기술을 사용했다. 한우의 유전체 선발 기술을 통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되는 암소를 선별하고 저탄소 형질을 대물림 시킨 송아지를 정밀사양을 통해 사육 기간을 단축한 것. 이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를 추적하고 계측 정량화하는 기술이다. 유엔식량기구 기준 소고기 1kg 당 25.5kg 이상의 탄소발자국이 배출되는데, 이번에 출시된 '청춘한우'의 경우 그에 비해 평균 15.9kg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술이 축산에 도입돼 대형 백화점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되는 사례는 세계 최초다.

특히 이러한 기술이 전국단위로 확대 될 경우 향후 2030년 정부 목표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북대는 산학협력을 통해 저탄소 소 검증과 모니터링 기술을 국내 한우산업에 확대 적용을 가속화시키는 한편, 축산탄소중립 기술의 글로벌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탄소발자국 추적 검증 모니터링과 이를 활용한 탄소 크레딧 거래 플랫폼 연구개발을 완료했다. 내년 1월 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박람회인 CES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 연구기술을 개발한 전북대 교원창업 벤처기업 멜리엔스는 최근 맥도날드, 월마트, 타이스, 카길 등 세계적 축신 및 유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지속 가능한 소고기 협의체인 'GRSB'(Global Roundtable for Sustainable Beef)의 공식 회원으로 승인됐다.

이학교 대표(전북대 동물생명공학과 교수)는 "최근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축산이 지목되는 등의 막연한 위기감에서 벗어나 지역의 가치창출 성장산업으로 도약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고창부안축협과 오랜 기간 진행했던 축산탄소중립을 위한 산학협력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시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축산문화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청춘한우가 생산하는 고창 저탄소 한우는 축산분야에서 탄소중립의 핵심적 전략이 될 것"이라면서 "축산업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은성기자·고창=김영식기자

---

완산서초-효정중 통합 무산

# 전교조 전북 "교사 책임 아니다"

### 효정중 학생 9.8% · 학부모 28.7%만이 통합 찬성

### "애초에 교사들에게 투표권 부여하지 않아"

최근 전주완산서초와 효정중의 통합운영 찬반투표가 부결돼 통합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전교조 전북지부가 15일 성명을 냈다.

전북지부는 이날 2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들이 반대투표를 유도했다", "특별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등 전북교육청이 져야 할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20년 화정중학교(에코시티)와 양현중학교(혁신도시)를 신설할 때,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 2022년 12월까지 전주시 구도심 중학교 2개교를 폐교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사후조건부 승인을 했던 것에서 비롯됐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폐교로 인정해준다는 초중통합운영학교안을 제시했고, 대상 학교로 '곤지중+완산초'와 '효정중+완산서초'를 선정했다. 곤지중학교는 폐교논란이 몇 해에 걸쳐 진행되면서 폐교보다는 통합을 통한 존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었으나, 효정중학교는 학생수·학급수가 적은 것이 아니어서 폐교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

투표 결과 효정중학교 학생 9.8%, 학부모 28.7%만이 통합에 찬성했다.

이에 대해 전북지부는 "그 책임을 효정중 교사들에게 돌리려 한다"며 "교사들에게는 애초에 투표권도 부여하지 않았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에게서 투표권을 박탈한 것은 교사들을 배제한 비민주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더욱이 "유인물을 배포해서 선동하고 강요했다는 거짓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교사의 개인 생각이 반대라고 해서 학생·학부모가 반대로 선동될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북지부 관계자는 "문제의 근원은 정부의 '학교 총량제'에 있다"면서 "이것은 교육의 논리가 아니라 시장의 논리다. 신도시가 들어서면 학교를 신설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구도심의 학교를 없애야 하니 지역 간에 싸움이 벌어지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반교육적인 전제조건을 바꿔내든,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의 대책을 만들어내든, 그 책임은 교육당국이 져야 한다"면서 "그동안 학교 교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임한 교사들에게 되려 책임 여부를 따지지 말라"고 당부했다.

/장은성기자

---

# "한일장신대 이사장, 비리 은폐·감질 멈춰라"

### 전국교수노조 한일장신대지회 등 "교육부, 행정·회계 감사 실시를"

"한일장신대 이사장은 비리 은폐와 갑질을 중단하고, 교원의 재임용 탈락 결정을 취소하라"

전국교수노조 한일장신대지회, 전국대학노조 한일장신대지부, 한일장신대 교수협의회, 한일장신대 총동문회 등은 15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는 온갖 비리 의혹이 있는 학교법인 한일신학과, 한일장신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강력한 행정·회계를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한일장신대학교 이사회는 지난 2일 재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교수노조 지부장을 비롯한 4명의 교원의 재임용을 부결했다. 이는 명백한 교권탄압과 생존권 박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재임용 탈락 사실을 본인들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아 이의신청을 비롯한 모든 기회를 빼앗고 있다. 재임용 탈락 사례가 없는 우리대학에서 이런 초유의 사건은 희생자 전원이 우리대학의 비리의혹에 대해 감사요청을 한 교수노조 지부장과 회원으로서 이사회는 내부 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보복인사를 감행한 것이다.

이어 한일장신대학교는 새로운 총장이 취임한 이후에 전 총장 재임 시절 있었던 건물 구입과정의 절차 위반, 외국인 학생 모집 운영 관련 의혹, 교원의 겸직 등에 대해 방송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그 후 대학은 자체 감사를 통해 부당하게 지급한 수당과 법인카드의 개인 유용, 회계 서류의 실종 등의 비리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했으나, 이사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내부 고발자를 색출해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만을 고수해 왔다고 했다. 궁여지책으로 산학협력단장은 전북경찰청에 관련자를 고발했으나 거의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는 결론조차 내지 않고 지지부진하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수사가 시간끌기를 하는 동안 비리혐의 당사자들은 교내에 현수막을 통해 총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수노조는 지난 10월 13일 교육부에 종합감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사장은 교육부 소명자료를 법인 담당 직원의 결재 과정을 생략한 신뢰 할 수 없는 자료를 교육부에 전달, 총장의 인사권을 침해해 법인 담당 직원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에도 이사회는 이미 밝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오히려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교직원을 조사하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왔고, 대학에서 요청한 계약직원의 무기계약 전환 요청을 예산 부족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해 퇴직시켰다"고 말했다.

끝으로 교수노조 지회장, 사무국장, 교수노조 회원으로 희생양이 된 재임용 탈락 교수, 교수노조, 직원노조, 교수협의회, 200여명의 운동처방재활학과 재학생, 운동처방재활학과 학부모 그리고 총동문회와 신학대학원 동문회, 그리고 여성동문회는 "전북 경찰청의 지지부진하고 무책임한 수사 행태를 규탄한다"며, 조속한 수사 마무리와 처벌을 요구했다.

/장은성 기자

---

## 군산교육플랫폼 오늘 개통

군산교육플랫폼(이하 플랫폼)이 16일 개통된다.

이에 따르면 플랫폼은 군산 각처에 산재한 교육자원을 통합해 학생, 학부모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됐다.

특히 교육(관련)기관들이 서로 협력해 학교에 더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이 플랫폼에서는 △마을강사·교육(관련)기관·교육프로그램 등록·검색 △시청·교육지원청 공모사업 신청 △교육행정정보 등이 가능하다.

박경희 교육장은 "플랫폼은 군산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학교, 학생, 학부모, 마을강사, 기관 등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시민과 기관의 활발한 참여로 군산교육플랫폼이 명실상부한 인적·물적 교육자원의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플랫폼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접속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

## 전주대 건축학과, 16~23일 '구도심 도시재생 디자인전'

전주대학교 건축학과는 16~23일까지 교내 공학 2관 LINC HATCH 공간에서 '제11회 전주 구도심 도시재생 디자인전'을 개최된다고 밝혔다.

15일 전주대에 따르면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으로서 전주시의 도시공간 관련 현안을 함께 고민하며 건축작업을 지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전주 구도심 도시재생 프로젝트 전시회인 '도시재생 디자인전'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건축학과에 재학중인 25명의 학생이 전주 시내의 낙후된 공간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신선한 제안도 했다.

김준영 교수는 "이번 디자인전을 통해 25개의 전주 시내 공간이 학생들의 호기심으로 깨어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전주 시민과 전주대학교가 이런 아이디어들을 함께 공유해 나가는 역할을 계속해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

# '1수업 2교사제' 운영 통한 학생 맞춤형 지원 사례 공유

### 도교육청, 두리교사 운영 시범학교 성과보고회

### 배움이 더딘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 큰 성과로 꼽아

### 참석자들 "두리교사-협력교사 자발적 참여 중요"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두리교사 운영 시범학교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올해 시범학교로 전주덕일초, 전주북초, 전주서원초, 전주용와초, 이리부송초, 정읍북초 등 6개교를 운영했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창조나래(별관) 시청각실에서 진행된 두리교사 운영 시범학교 성과보고회에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1수업 2교사제의 협력수업을 학년별 교육과정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운영한 여러 사례와 그 성과를 소개하고, 이를 통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수업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두리교사제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한 수업에서 담임교사와 두리교사가 협력해 수업하는 1수업 2교사제를 말한다. 이는 크게 한 교실에 담임교사와 두리교사가 함께 들어가서 지도하는 '수업 중 협력수업' 또는 수업 중 학력지원대상학생을 1:1로 지도하는 '풀아웃(Pull-out)수업'으로 이뤄진다.

이날 보고회를 통해 1수업 2교사제의 가장 큰 성과로 배움이 느린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향상되고, 학력지원 대상 학생 수가 줄어든 것을 꼽았다. 더불어 학습 부진이 누적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특히 한 수업에 두 명의 교사가 참여함으로써 활동형 수업이 늘어나고 학생에 대한 피드백이 원활해지면서 수업의 질이 향상되고, 이에 따른 학급 전체 학생의 학력이 향상되는 효과도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1수업 2교사제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뿐만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협력수업을 위해 두 교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업 전문성이 향상되고, 수업을 마친 후 성찰하는 과정에서 수업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

서거석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이 시급한 시점"이라면서 "우리교육청은 학생의 인권인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1수업 2교사제 협력수업)운영 확대를 통해 학교와 함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리교사 운영 시범학교 성과보고회 참석자들은 "1수업 2교사제의 교육적 발전을 위해서는 두리교사와 협력교사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며 "운영 사례 공유를 통해 다양한 협력 수업 모델 및 학습 자료 개발을 지원하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코티칭·학습부진학생 지도 등의 연수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은성 기자

---

# '너도나도 공모전 수상작 감상하세요'

### 도교육청, 30일까지 52편 전시… 도민 누구나 관람 가능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30일까지 본관 2층과 창조나래(별관)를 잇는 연결복도에 '2022 너도나도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교육'이란 주제로 진행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사진(교직원), PPT(중·고등학생), 동시(초등학생) 등 3개 분야에 총 575편의 작품이 접수,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총 52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전시에 △사진 분야 대상 '로켓꿈나무와 물로켓장인' 박현아(영전초 교사) △PPT 분야 대상 '우리는 전라북도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열어가는 영선인입니다' 김소윤(영선중2) △동시분야 대상 '함께 수월래' 하찬기(영전초5) 등을 포함한 총 52편의 수장작이 전시된다. 전시회 기간 중 방문하면 도민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서거석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생각과 손끝에서 만들어진 이번 작품들을 통해 전북교육의 미래를 미리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모든 작품 속에 반영된 생각들은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수상자 명단과 작품은 전북교육소식 공모전(https://news.jbe.go.kr/index.jbe) 또는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전북교육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가족간의 소통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공모전을 실시했다.

/장은성 기자

---

손 씻기·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